

광주은행, 소상공인·중서민 금융지원 늘린다



13일 열린 광주은행 '4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송중욱 행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4분기 경영전략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추진 송중욱 행장 "지역밀착·포용금융 100년 은행 성장"

광주은행이 4분기 소상공인과 중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14일까지 이틀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4분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소상공인·중서민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질적 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경영전략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3-14일 이틀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영업 본부별로 진행되며 3분기 우수 실적 직원에 대한 시상과

각 부문별 우수영업 사례 발표, 4분기 추진사항 공유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는 송중욱 은행장이 지난 2분기 도입한 '톡톡데이' 형식으로 진행돼 각 영업점장이 영업점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형식과 절차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규제 강화, 빅테크 기업의 공격 등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는 4분기 상황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 강화, 자산포트폴리오 점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은 물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분허가'를 획득, 디지털 혁신 선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시대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이용자 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해진 '광주은행 개인뱅킹'을 전면개편해 오픈했으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100개 업무 자동화

구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간 소화 등을 실현했다. 여기에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실천, 지난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의 정량평가와 지역 내 경제기여도, 지역기업 투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 정성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기수회기자

투데이 경제

삼성전자 협력회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삼성전자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협력회사들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1 삼성전자 협력회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협력회사와 함께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채용박람회는 중소·중견 협력회사에게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들이 이 행사를 통해 경력사원뿐 아니라 신입사원도 채용하고 있어 청년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전자, 드림텍, 동우화인켄, 동진메카켄, 디케이, 솔브레인, KH바텍 등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회사 53개사가 참여했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상시 운영중인 '삼성전자 협력회사 채용관'에 마련됐다. /기수회기자

위니아담채, '플라스틱 방앗간'에 가전 기증

ESG 경영 일환...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활용

위니아담채는 페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에 가전제품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폐자원의 순환 실천 및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위니아담채가 기증한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새롭게 문을 연 플라스틱 방앗간과 노플라스틱선데이의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그린워커스'에서 사용된다. 페플라스틱 가공 재생산을 비롯해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며 특히 위니아 스마트패키지(일체형 세탁건조기) 제품은 페플라스틱 재가공을 위해 꼭 필요한 세척 및 건조 과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수회기자

'플라스틱 방앗간'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자원 순환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이 모아온 작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튜브짜개와 같은 다용도 물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위니아담채 브랜드 마케팅 담당은 "환경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 플라스틱 방앗간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제품을 기증하게 됐다"며 "위니아담채는 앞으로도 환경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담채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소상공인 대상 기부, 유기 동물 후원, 신진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수회기자



코스피 상승 마감 13일 중요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03포인트(0.96%) 오른 2,944.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3.32p(1.42%) 오른 953.47로 원/달러 환율은 5.0원 내린 1,193.8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1회 노란우산 사진전'

중기중앙회가 한국사진영상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5일까지 4주간 '제1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전' 공모를 진행한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선정된 사진은 11월 말 개최되는 사진전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전 주제는 노란우산 가입자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노란우산 가입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이벤트 URL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정한다. 상금은 총 1천650만원이며 수상 작품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주간 전시된다. /양시원기자

현대차그룹 '제1회 개발자 컨퍼런스'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분야 개발자들의 기술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업계 개발자들의 축제인 'HMG 개발자 컨퍼런스(HMG Developer Conference)'를 오는 11월10-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15일부터 사전 등록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의 여정(Journey for Smart Mobility Solution)'을 주제로, 현대차그룹 개발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hmgdevcon.com>)에서 가능하다. /기수회기자

농어촌공 관리 저수지 2곳 중 1곳 '60년 이상 노후'

홍문표 의원 "보수·보강 등 대책 시급"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2곳 중 1곳 이상이 시설된 지 60년 이상 지난 노후 저수지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관리 전체 저수지 3천400곳 가운데 1950년대 이전에 만들어

진 '70년 이상' 저수지가 1천538곳으로 45.2%를 차지했다. 60-70년 된 저수지는 511곳으로 15%였다. 홍 의원은 보통 저수지의 내구연한이 '60-70년'인 점을 고려하면 공사 관리 저수지 60.2%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후화 현황을 보면 30년 미만 390곳(11.5%), 30-50년 미만 462곳(13.6%),

50-60년 미만 499곳(14.7%) 등이다. 반면에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지난해까지 553곳에 그쳤다. 올해 계획된 115곳을 더해 668곳에 그친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 사전 방류 가능 시설인 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된 저수지도 508곳에 그쳐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특히 저수용량 20만㎡ 이상 대형 저수지(1천388곳)는 장마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홍수 피해 우려가 적지 않지만

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된 곳은 425곳(3.0%)으로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대형 저수지 중 70% 이상이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보수·보강 등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수위조절 장치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농

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 작성하는 보고서가 임직원들의 과장된 경력 쌓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488건의 안전진단이 이뤄졌고 임직원의 평균 참여 인원은 연간 9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직원 개인별 참여 횟수로 다시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안전진단 업무 참여 인정을 실제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100% 인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수회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